

#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http://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0년 8월 16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창 4:1-15

제목 : 성찰하는 신앙 · 회복되는 형상(3)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말씀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7)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묵상하는데 어린 시절에 형과 누나들이 부르던 노래를 귀동냥으로 따라 부르던 노래가 입가에 서 나왔습니다. 제목이 <고향 생각>입니다. “해는 저서 어두운 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1960년에 작고한 현제명 선생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현제명 씨는 대구 계성고등학교를 거쳐 송실전문대를 입학해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1923년 전주 신흥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결혼을 한 후 6개월 뒤 혼자 단신의 몸으로 1925년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송실전문대 재학 중 선교사로 파송 받아 테너로 활동하던 로디 히버 선교사가 그의 음악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유학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무디 성경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건 음악학교 <Gunn Music School>에서 석사학위를 받기까지 4년을 공부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연희 전문학교 음악 부 주임을 했고 서울대학교 초대 음악학장을 지내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 곡인 <춘향전>을 작곡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부르는 가곡을 작곡했습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로 시작되는 <그 집 앞> “노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의 <희망의 나라로> 가을이 되면 성인들은 누구나 한번쯤은 불러 보았을 “산들 바람이 산들 분다, 달 밝은 가을밤에 달 밝은 가을밤에...”의 <가을> 등, 아름다운 가곡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중에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부른 <고향 생각>은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음악공부를 할 때 외로움이 찾아 들었습니다. 달 밝은 밤에 창가로 스며드는 달빛을 보면서 고향생각 친구생각 가족 생각이 나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초고를 만들었고 귀국한 뒤 1931년에 정리하여 발표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1절만 악보를 띄워서 부르겠습니다. (악보 띄움) “해는 저서 어두운 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왜 이번 주 설교를 묵상하는 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을 까요? 이 노래 가사의 한 부분이 깊이 마음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수 없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 창2:18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브를 만들어서 짝 지워주셨습니다. 그 이브를 아담이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러면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도우면서 살라. 고했습니다. 가정의 일차적인 기능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잘 세우며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한 가정에서 한 부모 밑에서 한 핏줄을 받아서 이렇게 한 가족원이 되었지?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의 가사처럼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입니다. 형제간의 만남은 100%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숙명적인 만남입니다. 왜 이렇게 숙명적으로 만나게 한 것입니까? 서로 잘 도우면서 잘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형제간에 사랑을 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17:17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 한 핏줄로 맺어진 형제들은 가족에게 어떤 위급한 일들이 (예컨대 몸에 중병이 찾아 들었을 때, 이즘처럼 폭우로 논과 밭이 물에 다 잠기는 위기를 만났을 때 사업장에 화재가 났을 때 등)의 일들이 있을 때 서로 잘 도우며 그 위급한 일들을 헤쳐 나가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 특히 형제간의 관계를 잘 해야 에덴동산의 모습을 맛 볼 수가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형제들이 우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런 것이 천국인의 삶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형제간에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을 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

신 후에 인간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4:9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 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어찌하여 파괴되었는가? 그것을 성찰하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야! 네 아우가, 네 형제들이 어디 있느냐? 네 누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가를 깊이 성찰하고 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부모의 죄악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파괴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어졌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어지니 그 결과가 자녀들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죽인 사건입니다. 후에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소식을 알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을 까요?

부모들은 늘 가정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가정을 잘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모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니 부모에 대한 자세는 이정도로만 다루겠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란 질문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하여 성찰하라는 의미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몇 번 드린 말입니다. 홍대미대를 졸업한 (다니다가 인지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로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한때 교회에 다녔던 가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벽면을 보니 그린 그림들이 걸려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다 참 잘 그렸습니다. 딸이 그린 그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이 그린 그림인가 보네요? 정말 딸이 그림을 그리는 솜씨가 뛰어나네요? 말했습니다. 제 스스로는 어머니를

위로한다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제 이 말에 그 어머니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면 뭐합니까? 저는 그림을 못 그려도 살아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형제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자매간에 등을 돌리고 살고 있습니까? 식구들 간에 통화를 안 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그러십니까? 혹시 돈 문제입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의 분배로 인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서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까?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혹시 이러다가 누나가 형이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찌하렵니까? 그 시신 앞에서 후회가 되는 일을 살아 있을 동안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형제자매 그 자체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을 성찰하라는 질문입니다. 형제는 서로 사랑하며 위급한 때를 위하여 숙명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존귀한 자입니다.

어느 누가 성격이 고집스러운 자를 형으로 동생으로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누가 그렇게 까다로운 각쟁이 같은 누나를 그리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동생을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성질이 정말 좋습니까? 우리들도 얼마나 이기적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쉽게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한 한 숙명적인 만남입니다. 서로 받아 주면서 사랑하면서 잘 도우면서 서로 세워주라고 만나게 했습니다. 형제간에 관계를 잘 설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힘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손가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손입니까? (사진)자기네들이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엄지가 내가 최고다 하면서 엄지척하지 않느냐?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검지가 자랑합니다. 무엇을 가르칠 때 어느 손가락을 나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스마트폰이 필수적인 생활용품이 된 이 시대에는 집게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러자 중지가 말합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제일 크니 까불지 마라. 그러자 약지가 말합니다. 너희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게 사랑 아니냐? 사람들이 서로 사랑의 연약을 맺을 때 반지를 어디다 끼냐? 나 아니냐?

그러나 가장 작은 새끼손가락이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생기기도 자기가 보아도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수줍어합니다. 그러다 생각을 한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 다 내가 없으면 다 불구자다.

맞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어서 온전해 지는 것입니다. 혹시 형제와 자매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 연약한 자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사랑으로 더 온전해 지는 것은 아닌 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은 자녀가 연약함으로 그 가족이 더 사랑하며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다 서로 함께 밸런스를 맞추어서 사랑하며 자기 역할을 잘 할 때 주먹을 쥐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형제자매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마음에 시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성찰하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4:5-8절입니다. "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씀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네가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에 분기가득하니 얼굴의 색이 변합니다. 아마 매서운 독기가 얼굴에 차올랐을 것입니다. 눈은 뱀눈이 되었을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이렇게 마음을 변하게 만들고 얼굴마저 눈동자마저 변하게 만듭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특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상태에서는 가인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가 있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리라는 경고의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시기심에서 오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마음의 시기심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시기(猜忌)라는 한자의 의미는 개가 푸른 하늘을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멀리하는 것입니다. 시기의 헬라어는 <젤로우>입니다. 영어의 <jealousy(질투하는)>란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젤로우>는 <질투하다> <시기하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다>라는 뜻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이익과 번영함에 대한 강한 불쾌감>이라는 의미입니다. 서양 속담에는 “내가 실패할 때 나를 동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내가 성공할 때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백 사람쯤 된다.”고 했습니다. 남이 잘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누구나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울도 다윗에 대한 질투에서 오는 분노와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다른 자식들보다 더 요셉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옷도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매사에 불평하면서 언사가 요셉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형 르우벤이 막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세배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하며 구하기를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십사 요청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열 제자가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겼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마27:18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앎이니라.” 이 시기심을 잘못 다루면 생명을 죽이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14:30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가인도 결국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시기심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선 교만에서 옵니다. 교만에서 남이 잘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또한 열등의식에서 옵니다. 가인의 살인은 바로 교만과 열등의식에서 유래합니다. 이런 마음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을 깊이 성찰하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혹시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데 이 관계가 깨졌습니까?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관계가 깨어졌다면 어서 회복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세우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형제를 있는 존귀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운명적인 만남으로 형성된 가족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형제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있는 자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음의 가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한 번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께 사랑을 더 받은 자가 품에 앉기를 바랍니다. 형이 누나가 동생들을 다 품에 앉고 먼저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으로 누나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멋있게 생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한 소년이 다가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주인에게 슬며시 물었다. “아저씨, 이 자전거 꽤 비싸게 주고 사셨지요?” 그러자, 자전거 주인이 슬쩍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이 자전거는 형님이 나에게 주신 거란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소년은 부럽다는 눈치로 금세 “나도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자전거 주인은, 당연히 그 소년이 ‘나도 그런 형이 있어서 이런 자전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소년의 다음 말은 이러했습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는 심장이 약한 내 동생이 있는데, 그 애는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여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주고 싶어요.”

잠 17:17은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 잠언은 계속 말합니다. 17:1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묻습니다. “○○야!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답을 깊이 성찰하시면서 형제들 간의 관계가 늘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천국인의 삶을 늘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 주변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에덴동산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늘 형제자매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시며 사는 금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